

〈서동지전〉의 서대주 인물 형상화 양상과 그 의의*

이해진**

〈차 례〉

1. 서론
2. 선량한 부자의 탄생과 화목한 사회로의 지향
3. 판관을 일깨우는 서민 영웅과 위정자의 책임에 대한 발원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가운데 하나인 〈서동지전〉을 대상으로, 주인공 서대주(서동지)의 인물 형상이 갖는 변별적 특징을 살피고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이 작품의 의의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서 의의라고 함은 일차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에 대한 문학적 진단으로서 〈서동지전〉이 거둔 성취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서동지전〉이 줄 수 있는 시사점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도 〈서동지전〉이 재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고소설 작품임을 적극 드러내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동지전〉은 쥐와 다람쥐 사이에 벌어지는 양식 다툼과 송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대주전〉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작품인데, 부자 서대주와 빈자 다람쥐의 선악 인물구도를 전복시켜서 서대주를 긍정적으로 그려낸 점이 〈서대주전〉과 큰 차이점이다. 이 글은 서대주의 긍정적 인물 형상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의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포착하였다. 하나는 '선량한 부자의 탄생'과 거기에 담긴 '화목한 사회로의 지향'이다. 조선 후기 경제적 양극화와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

* 이 논문은 2023년 5월 13일(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2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강릉원주대 국문과 장예준 교수님을 비롯해 논평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갈등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선량한 부민인 서대쥐의 다람쥐 포용은 화목 사회의 회복을 위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판관을 일깨우는 서민 영웅’과 거기에 담긴 ‘위정자 책임에 대한 발건’이다. 서대쥐가 판관인 호랑이 앞에서 송사가 만연한 원인을 단지 서민 개인 간의 잘잘못이 아닌 위정자의 그릇된 정치로부터 찾고 있는 것은 당대 향촌 사회의 빈부 모순에 비추어 사회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간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물 우화소설은 동물을 내세움으로써 인간 존재의 복잡한 면모를 다채롭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동물에게 기대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 사회의 문제를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예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서동지전>은 그러한 이점을 잘 발휘한 소설이다. 같은 서민에게는 포용적이면서 위정자 앞에서는 용감했던 서대쥐 인물 형상이 지닌 의의, 그리고 <서동지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 또한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서동지전>,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인물 형상화, 주제적 초점, 향유 의식, 서민 영웅, 고소설의 현재성

1. 서론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되고 향유된 동물 우화소설¹⁾은 동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모두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단 “동물을 인물로 내세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혹시 생길지 모를 여러 가지 부담을 꺾”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 우화소설이 지닌 이점이다.²⁾ 반면

1) 조선 후기 동물 우화소설은 크게 ‘쟁년형 우화소설’(〈노삼상좌기〉·〈녹처사연회〉·〈두껍전〉류)과 ‘송사형 우화소설’(〈황새결승〉·〈까치전〉·〈서대쥐전〉·〈와사육안〉·〈작오상승〉류) 그리고 ‘판소리로 불린 우화소설’(〈토끼전〉·〈장끼전〉)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출현,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9~10쪽.

2) 최진형 율김, 『서동지전』,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 8쪽 참조.

에 특정한 속성을 지닌 동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세계의 전형
을 폭넓게 창출하기 어렵”고 “인간세계의 다양한 갈등 요인을 형상화하기
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동물 우화소설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³⁾ 비스
한 시기에 향유된 다른 장르의 고소설들과 비교할 때, 동물 우화소설에 대
한 관심과 논의가 현재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한계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동시에 동물 우화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토끼전〉(이칭 〈수궁가〉, 〈도별가〉, 〈별주부전〉 등)의 경우 여전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현대 여러 문화콘텐츠의 풍부한 소재적 원천으로
도 활용되고 있음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더불어 시야를 현대와 해외로 넓
히면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라이온 킹〉 같은 동물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감명을 주면서 재차 개봉되고, 〈주토피아〉와 같은 새로운 동물 이야기가
창출되어 흥행하는 상황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이들 작품은 사람보다 더
사람같은 동물들을 통해 인간 세계의 이데올로기, 권력, 편견 등의 묵직한
문제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성찰하게끔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동
물 우화소설 또한 장르 자체가 한계라기보다 그 안에 얼마만큼 인간 세계
에 대한 유의미한 문제의식과 공감의 요소들을 잘 담아내고 있느냐가 작품
의 성취를 좌우하는 기준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조선 후기 동물 우화소설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진 〈토끼전〉이나 〈장끼전〉 외에도 재음미해 볼 만
한 다른 작품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 당대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현
재 우리 삶과 문화와도 연관지어 사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는 곧 고소설의 당대성과 현재성을 아울러 살피는 작업과도 관련되며, 이
두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소설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전(古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예준, 「송사형 우화소설의 유형적 본질과 존재 의미」,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
설학회, 2021b, 228쪽 참조.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서류(鼠類) 송사형 우화소설⁴⁾ 가운데 하나인 〈서동지전〉에 주목한다. 송사형 우화소설이라는 장르, 그리고 〈서동지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송사형 우화소설은 부익부 빈익빈, 신분 갈등, 뇌물 수수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제삼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화두들이라는 점이다. 나날이 심화되는 소득 격차와 재산 불평등, 사회의 다층적 위계화,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비리, 청탁의 문제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송사형 우화소설은 조선 후기 사회상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의 사회상과 관련지어서도 그 의미를 재조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고소설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동지전〉은 쥐와 다람쥐 사이에 벌어지는 양식 다툼과 송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대주전〉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작품임이 지적되었는데,⁵⁾ 송사형 우화소설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는 〈서대주전〉과 비교할 때,

4) ‘송사형 우화소설’은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송사사건이 작품 전반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며 전개되는 일련의 우화소설을 말하며,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은 그중 쥐를 소재로 한 작품군이다(신혜진 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서, 2008, 31~32쪽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서육기〉, 〈서대주전〉, 〈서동지전〉, 〈서오전〉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초 이후 다소 뜸했다가, 근래 들어 〈서오전〉, 〈다남의 소지랑〉 등의 작품 원문이 새로 공개되었고 관련 연구들 또한 다시 제출되고 있다: 유기욱, 「〈서오전〉 평석」,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87~109쪽; 장예준, 「〈서오전〉의 서사적 특징과 주제의식」,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2020a, 375~408쪽; 정영문, 「쥐와 다람쥐 소재 우화소설 〈다남의 소지랑〉」, 『한국문학과 예술』 3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323~328쪽; 장예준, 「송사형 우화소설의 한 가지 독법: 〈서육기〉의 재판 공방 양상과 향유 지점」, 『동악어문연구』 82, 동악어문학회, 2020b, 179~215쪽; 장예준, 「송사형 우화소설에 형상화된 재판의 사실성과 연구사적 전망-〈서오전〉에 나타난 재판의 양상」, 『동양고전연구』, 82, 동양고전학회, 2021a, 69~103쪽; 장예준(2021b), 앞의 논문, 225~262쪽; 정충권, 「우화소설의 지식 담론 활용과 그 후대적 변용」, 『고전문학과 교육』 4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143~176쪽.

〈서동지전〉에서는 개성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뇌물 수수를 통한 부당한 판결’은 송사형 우화소설의 주제 구현에 있어 곧잘 등장하는 것이고⁶⁾ 〈서대주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서동지전〉의 경우, 뇌물 수수에 준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판결과 큰 관련이 없고, 또 판결이 부당하게 끝맺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서동지전〉이 주제적 초점을 좀 다르게 잡고 있음을 알려주며, 여기에 집중한다면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작품군 속에서 〈서동지전〉이 갖는 위상과 의의를 새롭게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위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서동지전〉의 변별적 특성을 주인공 서대주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거기서 엿볼 수 있는 〈서동지전〉의 의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의의라고 함은 일차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에 대한 문학적 진단으로서 〈서동지전〉이 거둔 성취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 〈서동지전〉이 줄

5) 이 글에서 〈서대주전〉은 한문본(문선규본)을 지칭한다. 〈서대주전〉과 〈서동지전〉이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는 점에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지만, 둘 중 무엇이 더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예컨대 문선규와 신경숙은 〈서동지전〉이 앞선다고 본 반면, 민찬은 〈서대주전〉이 앞선다고 보았다. 한편, 민찬은 〈서대주전〉과 〈서동지전〉 외에 다양한 국문 필사본들의 존재를 들어 〈서대주전〉에서 〈서동지전〉으로의 개작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정출현은 〈서대주전〉에 가까운 판본들이 대부분임을 들어 〈서동지전〉은 예외적인 후대적 개작본이라고 추정했다. 문선규, 「서대주전에 대하여」, 『화사 외 2편』, 통문관, 1961, 26쪽; 신경숙, 「송사형 우화소설 - 「서대주전」 「서동지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0,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1, 113쪽; 민찬, 「〈서대주전〉의 전승경로와 사회적 성격」, 『인문과학논문집』 17,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김재환 편저, 『한국 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서, 2005, 205쪽);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144쪽; 정출현(1999), 앞의 책, 202쪽.

6) 그래서 장예준은 송사형 우화소설의 작품 주제 파악 역시 ‘뇌물 수수를 통한 부당한 판결의 비판’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지적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송사형 우화소설 중 〈서오전〉 같은 작품은 당대 재판의 실상을 작품 속에 반영(폭로)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아내고 있는바,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의 주제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읽어낼 필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장예준(2021a), 앞의 논문, 97~98쪽 참조.

수 있는 시사점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서동지전〉을 다시 읽고 논할 만한 이유 또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존에 〈서동지전〉에 대해서는 “서대취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람쥐가 서대취를 무고하지만 현명한 판관이 잘잘못을 가려 간악한 다람쥐에게 벌을 준다는 내용으로, 배운망덕한 인간들을 경계한 작품”, “조선후기 새로이 등장하는 요호층이 한편으로는 부패한 지배층과, 한편으로는 빈민층과 대립하면서 때로는 대결을 통해서 때로는 타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⁷⁾ 이 글은 이러한 기왕의 평가를 참조하면서도 〈서동지전〉이 동물 세계, 특히 주인공 서대취라는 인물을 빌려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발견함과 동시에 사회의 화합에 대한 상상력 또한 일정하게 내포한 의미 있는 작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는 〈서동지전〉이 부농 서대취를 미화하고 빈농인 다람쥐를 쓸모 없는 존재로 그려냈다고 보고 〈서대주전〉에 비해 퇴보적인 작품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⁸⁾ 이 글은 관점을 달리하여 〈서동지전〉이 오히려 진전된 대사회적 인식을 담은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혀보려고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1918년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활자본 〈서동지전〉으로, 이 판본은 이후 1921년 대창서원·보급서관에서 그대로 재판되기도 하였던 만큼 20세기 전반의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자아내는

7) 신해진 편역(2008), 앞의 책, 42~43쪽.

8) 대표적으로 정확성은 영창서관본 〈서동지전〉이 서대취의 영웅적 덕성을 찬미하고 그에 동감하면서 다람쥐를 정당한 사회에서 동떨어진(제외된) 사회의 적으로 규탄하려 든 작품이며, 이는 역사 의식을 상실한 반동과 사회 의식이 근절된 자기비호의 안일애 빠져 있는 작가의 통속적 개작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정확성, 「우회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정확성, 『고전소설의 양식과 비판정신』, 월인, 2015, 292~296쪽).

바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논의를 통해 〈서동지전〉이 조선 후기와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재음미하고 재해석해 볼 가치를 지닌 동물 우화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2. 선량한 부자의 탄생과 화목한 사회로의 지향

〈서동지전〉에서는 부자인 서대쥐의 구휼을 입은 바 있었던 빈자 다람쥐가 후일 다시 양식을 빌리러 갔다가 서대쥐가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거절하자 양심을 품고 서대쥐를 무고(誣告)하는 데서 갈등이 빚어진다. 여기서 암시받을 수 있듯 〈서동지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흥부와 놀부를 대표주자로 하여 떠올리게 되는 고소설의 전형적 인물 형상화 기법, 즉 ‘선량한 빈자’와 ‘불량한 부자’의 인물 구도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소설 속에서 다람쥐의 경우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서술자에 의해 명확하게 ‘불량한 빈자’로 규정된다.

(A) 이찌 구궁(九宮)산 봉으로 호도산(河圖山) 낙서동(洛書洞)에 한 증성이 있스되 일흠은 달암(達岩)쥬라 본대 성품이 간악(姦惡)호고 위인(人)이 불인(不仁)홀 썩 외(外)라 마음이 계르고 몸을 심히 앓기는지라 고로 가세(家勢) 빈흔(貧寒)호야 일일(一日) 지식(再食)은 일도도 말고 습순구식(三旬九食)이 어려운지라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24쪽)⁹⁾

9) 이 영창서관본 〈서동지전〉은 1918년 9월 29일에 편집자 강의영(姜義永) 명의로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후 1921년 11월 25일에 대창서원·보급서관에서 그대로 재판되었다. 텍스트 인용은 『구할자소설총서: 고전소설6』, 민족문화사, 1983에 영인된 재판본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띄어쓰기와 밑줄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텍스트 인용시 마찬가지로 방식을 취하고, 인용 쪽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A)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람쥐는 ‘본디 성품이 간악하고 뽀뽀이가 어질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이 게으르고 몸을 심히 아끼는’ 존재이며 그래서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려워 ‘심순구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 그는 염치를 불고한 일이라는 부인(계집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대쥐가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청치 않은 손님으로 찾아간다. 그리고는 말썽씨를 잘 발휘해 ‘생률(生栗) 1석과 백자(柏子) 5두¹⁰⁾를 얻어 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것들을 모두 소진하고 나자 다시금 서대쥐를 찾아가 또 양식을 빌리려 시도하고, 거절을 당하자 서대쥐를 무고하는 행위에 이른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매질까지 하여 쫓아낸 놀부를 감싸준 흥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일전에 긴요한 도움을 베풀었던 서대쥐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다람쥐는 분명 불량한 인간형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서대쥐의 경우는 그의 성품이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의 인물 형상은 독자가 소설 내부의 정보들을 모아가면서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대쥐가 서사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선량한 부자 형상¹¹⁾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해보면서 거기서 엿볼 수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논하도록 하겠다.

서대쥐는 밤에는 산에 올라 양식을 거두어 밀천을 삼고 낮에는 자손과 더불어 의사를 강론하는 인물이다. 그러던 중 그는 과거 당(唐) 천자가 금용성을 칠 때 이를 도운 업적을 인정받아 백자(柏子)와 울목(栗木) 4만 6천 주를 사급받고 가선대부 행동지 통정대부 겸 응주첨사라는 교지도 받게 된다. 소설 제목으로 쓰인 ‘서동지(鼠同知)’라는 호칭은 바로 이 교지에 기

10)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28쪽.

11) 〈서대쥐전〉은 물론이고 이 유형 작품군에 속하는 모든 국문 필사본, 구활자본들을 통틀어 볼 때, 서대쥐를 선량한 부자 형상으로 일관되게 구축해나간 것은 〈서동지전〉이 유일하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서대위가 부자가 된 내력인데, 이렇게 본다면 일단 서대위의 부는 그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진, 나름대로 근거 있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대위가 만아들 장자취나 부인 고산서씨 취, 그리고 하복 취들과 나누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꽤나 신중하고 검소하며 출세나 권위의식에도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B) 디취(大智) 듯기를 다하미 희색(喜色)이 만면(滿面)하여 왈(曰) 선지(善哉)라 네 말이여 기지(奇哉)라 네 말이여 진실노 군자(君子)로다 너것 혼 아들을 두엇스니 문왕(文王)에 백자(百子)와 곽분양(郭汾陽)이 천손(千孫)을 엇지 귀(貴)타 흐리요 (10쪽)

(C) 여차(如此) 흉년(凶年)의 백종(百種)이 극귀(極貴)하고 물가(物價)는 고등(高登)〔‘高騰’의 잘못-인용자주〕헌디 만일(萬一) 잔치코져 흘진디 소용(所用) 물품(物品)이 불소(不小)〔‘不少’의 잘못-인용자주〕하야도 순천금(數千金)에 지너리니 이 나의 일시 즐기음만 생각(生覺)¹²⁾하고 공연(空然)이 지물(財物)을 남용(濫用)하여 후세(後世) 즈손(子孫)에 생산가업(生産家業)을 허비(虛費)하리오 다시는 잔치 이자(二字) 말을 말나 (15쪽)

(D) 부인(夫人)〔‘婦人’의 잘못-인용자주〕의 통달(通達)로써 나에 모식(模塞)흔 흉금(胸襟)을 열고 어둔 마음을 씨닷게 하니 부인(婦人)은 진실(直實)〔‘眞實’의 잘못-인용자주〕노 녀중군자(女中君子)요 치마 두른 장부(丈夫)라 엇지 날갯흔 줄장부(拙丈夫)야 붓그럽지 안이리오 (16쪽)

12) ‘생각’은 순우리말이어서 한자를 쓸 필요가 없으나 굳이 한자를 병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서동지전〉에서는 한글 및 한자 표기에 종종 오류가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텍스트 인용시 원문을 그대로 옮기되 [] 기호를 활용하여 인용자주를 다는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부질없이 제왕영웅과 충효열절과 부귀공명 문장을 어디에다 쓰겠냐며 집안의 화목이 우선이라는 장자취의 말에 대단히 흡족해하는 모습(B), 천자의 포상을 받자 기념 잔치를 열자는 장자취의 제안에 대해 높은 물가와 후손의 생계가업을 따져 당장의 즐거움을 경계하는 모습(C), 그럼에도 재물을 아낄 경우 남에게 수전노라는 비방을 면치 못할 테니 잔치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는 부인의 조언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모습(D)¹³⁾이 이 점을 잘 대변한다.

그런가 하면 서대취가 곤란에 처한 이를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씨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작품 서두에서 서대취가 자신에게 교지 소식을 전하러 온 청지기 취의 곤궁한 사연을 듣고, 자기 집에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지내라고 하는 데서부터 잘 드러난다.¹⁴⁾ 그리고 이후 서씨 문호의 여러 일족들을 초대한 잔치에서 그가 불청객 다람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이르러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의 초

13) <서동지전>에서 서대취가 이처럼 부인(고산서씨 취)의 조언을 경청하는 모습은 다람쥐가 부인(계집다람쥐)의 조언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계집다람쥐는 남편이 자신의 옳은 충고를 듣지 않고 되려 욕설을 퍼붓자 집을 나가버리는 데, 이 장면은 <서동지전>의 개성적인 부분 중 하나로서 중세적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황재균, 「조선 후기 의인체 설화소설의 근대적 성향-장끼전과 서동지전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학회, 1983, 173쪽).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서동지전>이 서대취와 다람쥐의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낸 것은 인물 대립구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서대취의 긍정적 인물 형상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14) “요사이 반삭(半朔)이 지니도록 오는 일이 업기로 일기(日氣)는 차고 백설(白雪)이 만적(滿跡) 하미 왕리(往來)에 길이 불편(不便) 하야 오지 안는가 하엿더니 원리(元來) 이런 연고(緣故) 잇섯고나 드르미 놀납고 가련(可矜) [‘可憐’의 잘못-인용자주] 호도다 나는 너의 살림이 이갓치 곤궁(困窮) 혹은 생각(生覺)지 못하미니 오히려 너가 너를 료량(料量)하는 마음이 불족(不足) 하미라 (...) 지금(至今) 너를 일이석(一石) 양미(糧米)를 주고 시부는 줄연(猝然)이 가숙(家屬)이 업스미 뒤라서 조석(朝夕)을 공괴(供餽) 하리오 그 사이 네 자식(子息)이나 데리고 아주 탁(宅)에 와엿다가 리두(來頭)를 보와 지너라”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12~13쪽.

쾌하고 남루한 행색을 본 서대쥐는 ‘마음이 척연(感憐)하여’¹⁵⁾ 극진하게 대우하고, 드디어 다람쥐가 구구절절한 사정을 들어 구휼을 청했을 때에도 기꺼이 자기 양식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E) 서대쥐(鼠大智) 청과(聽罷)에 심(甚)히 인련(哀憐)하여 굴으던 그대의 말을 드르니 진실(眞實)노 비감(悲感)흔지라 외[‘회’의 잘못-인용자주] (噫)라 고진감리(苦盡甘來)와 흥진비리(興盡悲來)는 즈고(自古) 상사(常事)라 (...) 즈고(自古)로 영웅군주(英雄君子) 한 번 곤궁(困窮)은 면(免)히기 어려운 고로 고인(古人)이 일넛스되 함지사지(陷之死地) 이후(而後)[‘以後’의 잘못-인용자주]에 싱(生)히고 치지망디(置之亡地) 이후(而後)[‘以後’의 잘못-인용자주]에 존(存)이라 죽을 쌍을 당하면 살 곳이 열린다 하였스니 그대는 빈곤(貧困)을 혐의(嫌疑)[‘嫌疑’의 잘못-인용자주]치 말고 하늘을 순히 하여 도라오는 씨를 기다리라 인(因)하여 세간(細幹)¹⁶⁾ 청직(廳直)이 쥐를 불너 싱률(生栗) 일석(一石)과 빻자(栲子) 오두(五斗)를 주라 하여 노복(奴僕) 쥐로 하여곰 달석사댁(達碩士宅)으로 보너되 잔치 여물(餘物)을 큰瓢(瓢子)에 담어 부송(付送)하라 하고 달암쥐(達岩智)더러 일너 왈 싱률(生栗) 빻즈(栲子)는 비록 약소(略小)하나 이는 한 잔 물노 아방궁(阿房宮) 더화(大火)를 구(救)함이요 한 그릇 밥으로 밍상군(孟嘗君)의 삼천객(三千客)을 먹이미라 모로미 갑호물 싱각(生覺)지 말고 한 씨 도석(朝夕)을 보티라 (28~29쪽)

(E)에는 서대쥐가 다람쥐의 사정을 ‘듣기를 다함에 심히 애련’해 하면서 ‘생률 1석과 백자 5두를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해 ‘모름지기 깊음을 생각지 말고 한 때 아침 저녁을 보태’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서대쥐는 자신이 지닌 부를 그 자신과 일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데까

15)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26쪽.

16) ‘세간’은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나, 잘못된 한자 병기를 하고 있다.

지도 쓸 줄 아는 미덕을 갖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미덕이 우연한 발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람쥐가 서대쥐를 또 다시 찾아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F)는 서대쥐가 비록 다람쥐의 청을 거절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부분으로, 그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F) 서대쥐(鼠大智) 침음양구(沈吟良久)에 왈(曰) 그대는 니 말을 드르라 본(本)더 우리 서씨(鼠氏) 루천세(屢千歲)에 당너지친(堂內至親)과 원근 제족(遠近諸族)이 경향(京鄉) 각처(各處)에 분산류락(分散流落)하야 부요자(富饒者)도 잇스며 빈곤자(貧困者)도 잇스미 구년(舊年) 신정(新正)과 경조상문(慶吊相問)이며 궁교빈족(窮交貧族)에 제활구목(濟活救穆)이 미년미월(每年每月)에 만여금(萬餘金)이 지니고 가중소솔(家中所率)과 상하노복(上下奴僕)이며 조상신령(祖上神靈)의 스시향화(四時香火)를 의론(議論)홀진더 용도(用道)〔‘用途’의 잘못-인용자주〕를 불가형언(不可形言)이라 이리흠으로 그대에 지차(再次) 구청(求請)하느 바를 청중(聽從)치 못하니 불여불문(不如不聞)이오 불여불청(不如不聽)이라¹⁷⁾ 모로미 나에 부족(不足)흠을 혐의(嫌疑)치 말고 일후(日後) 다시 상종(相從)흠을 헤아리라 (32쪽)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특히 서대쥐가 매년 매월 10,000여 금이 소요되는 곳 가운데 ‘빈곤한 벗과 친척[窮交貧族]을 구활하고 화목함을 돕는[濟活救穆]’ 일을 꼽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람쥐와 같은 빈곤한 이웃 친척들이 이미 주변에 산재해 있고, 이들을 구제하는 데

17) “불여불문(不如不聞)이오 불여불청(不如不聽)이라”라는 구절에서 ‘不如不聽’은 ‘不如不請’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해볼직하다. 문맥상으로 보면, 서대쥐가 다람쥐의 여러 번 청하는 바[再次求請]를 거절하게 되었으니 서대쥐의 입장에서는 ‘듣지 않은 것만 못하고[不如不聞]’, 다람쥐의 입장에서는 ‘청하지 않은 것만 못한[不如不請]’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적지 않은 재산을 써왔던 것이다. (F)에서 서대쥐가 말을 꺼내기에 앞서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오래 생각한 뒤[沈吟良久]’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서 다람쥐의 청을 거절을 하는 데 그가 느꼈을 어려움이 넘치지 나타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람쥐는 서대쥐의 거절 사유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악담을 퍼붓고 ‘노기(怒氣) 발발(勃勃)한 채로 떠나는바, 서대쥐는 이에 탄식하면서도 ‘후일 다시 저의 함원(含怨)을 풀어주리라’고 마음 먹기까지 하는 넓은 도량을 보여준다.¹⁸⁾

이처럼 남의 고통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서대쥐의 성품은 작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호랑이 판결 부분에서 다람쥐의 무고가 밝혀지고 그 죄값으로 다람쥐에게 엄벌과 귀양살이 처분이 내려졌을 때 서대쥐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에서 정점을 찍는다. 그는 호랑이에게 ‘다람쥐로 하여금 중형(重刑)으로 다스릴진대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침이오, 오히려 노승 발검(怒繩拔劍)’이라면서 다람쥐를 감싸주고, 나아가 재판이 종료된 후 돈과 양식을 나누어주기에 이른다.

(G) 노중(路中)에서 서로 작별(作別)할 시 서대쥐(鼠大智)가 달암쥐(達岩智)더러 왈(曰) 그대는 오날날 일을 조금도 붓그러 말고 오히려 전일(前日)노 더부러 다름이 업시 문경(勿頸)에 사죄을(謝罪乙)¹⁹⁾ 미져 길이 함원을(含怨乙) 일으키 말나 호고 장자쥐를(長子智乙) 불너 가진 바 남은 전양(錢兩)을 상고(詳考) 하니 다만 슈십양(數十兩)이라 인호야 달암쥐(達岩智)를 주어 왈(曰) 그대의 형세(形勢)를 익이 아나이 집으로 도라가 가중범어스를(家中凡於事乙) 더강(大綱) 보불족(補不足)하라 (50쪽)

그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쥐가 어떤 부자로 그려져 있는가를 보건

18)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33쪽.

19) 조사 ‘을’을 ‘乙’로 한자 병기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含怨乙’, ‘長子智乙’, ‘家中凡於事乙’도 마찬가지이다.

대, 그는 자신이 축적한 부, 그리고 주어진 부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절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눌 줄 아는 검소하고 이타적인 부민(富民)상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조선 후기 소설 속에서 흔히 부자라고 하면 만나게 되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인물들, 예컨대 〈홍부전〉의 놀부, 〈옹고집전〉의 옹고집, 〈서대주전〉의 서대주²⁰⁾와는 차별화되는 이른바 ‘선량한 부자’ 캐릭터의 탄생을 〈서동지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홍부가 자신을 모질게 박대한 놀부를 구제하는 것으로 끝맺는 〈홍부전〉 결말을 떠올려 보면,²¹⁾ 다람쥐를 포용하는 서대주는 홍부의 인물상과도 겹쳐지는 측면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대주라는 인물은 ‘더불어 살 줄 아는 홍부’와 ‘경제적 실리 감각을 갖춘 놀부’ 사이에 중용(中庸)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문학적 모색을 담아 낸 결과라고도 평가할 만하다.

사실 서대주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천자로부터 받은 4만 6천 주의 백자와 울묵, 그리고 오소리와 너구리의 눈으로 본 그의 집 형세가 ‘주란화각(珠欄畫閣)이 굉장’²²⁾하다고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서대주에게 주어진 부는 실제 그의 능력이나 공로 이상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연 서대주는 자신이 지닌 부를 두고 ‘항

20) 〈서대주전〉에서 서대주의 부 축적은 남의 양식을 절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작중에서 서대주에게 알밤 50여 석을 몽땅 도둑맞은 피해자 다람쥐 또한 그를 ‘강도’로 묘사하고 있다. 〈鼠大州傳〉, 문선규(1961), 앞의 책, 88쪽.

21) 물론 〈홍부전〉의 모든 판본들이 홍부의 놀부 포용으로 끝맺는 것은 아니다. 경판본 〈홍부전〉, 하버드대학교 연경도서판본 〈홍보전〉, 오영순 소장 27장본 〈장홍보전〉, 김문기 소장 26장본 〈홍부전〉 같은 판본들은 놀부가 완전히 폐망하는 데서 끝맺고, 이중 오영순 소장본의 경우는 폐망한 놀부와 달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홍부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묘사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몇몇 판본들을 제외하면 〈홍부전〉 결말의 주된 경향은 홍부가 놀부를 구제하고 놀부는 개과천선하는, 화합의 결말을 지향하고 있음을 본다.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1~3, 바이정, 1997~2003 참조.

22) 영장서관본 〈서동지전〉, 42쪽.

상 마음에 과복함을 염려하는 바²³⁾였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서대쥐가 줄곧 타인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부에 대한 겸손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 이후에 자신을 무고한 다람쥐를 용서하고 구제하는 서대쥐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서대쥐의 배품에 감화를 받은 다람쥐가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머금어 스스로 죄(罪)를 꾸짖으며 돌아가’는 모습²⁴⁾을 보면 진정으로 그를 감화시킨 것은 판관인 호랑이가 아니다.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갖춘 서대쥐가 다람쥐 안의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일깨운 진정한 주체인 것이다.

실제 조선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힘 중 하나는 그 엄격한 신분 제도에도 불구하고 향촌 사회 구성원들 간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동하는 자치 문화였다. 한 역사학자는 “마을에서의 공동체적인 생활, 즉 상부상규(相扶相規)하던 동리주민(洞里住民) 상호간의 도움, 협동과 자치야말로 오랜 전통을 가진 관습이요 이것이 가난과 전쟁으로 뒤덮인 유구한 역사를 이겨낸 민족적 생명력의 샘이요 우리 역사의 관건이 바로 여기 있다”²⁵⁾는 집약적인 표현으로 그 현재적 의의까지를 짚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조 향약(鄉約)²⁶⁾의 4대 덕목을 떠올려 보면, 〈서동지전〉에

23)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46쪽.

24)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50~51쪽.

25) 김용덕, 「총서: 향약신론」, 향촌사회사연구회, 『조선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1990, 11쪽.

26) 향약은 일반적으로 “향촌 규약(鄉村規約)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을 뜻하며,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이자 하층민 통제수단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설명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하지만 “양반사족이 주도한 동계에 앞서 일반 민들의 주도로 운영되어온 공동체적인 촌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향촌사 연구자들 간에 있었다”(정승모,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민속원, 2010, 25쪽)는 점을 고려하면, 향약의 기원에 대해 반드시 양반들의 전유물 또는 하층민 통제 의도(수단)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국한시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향약이 향촌 사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게끔 하는 장치가 되어주고, 구성원들의 자치 문화와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서 곤란에 처한 이웃인 다람쥐를 두 번 구출하는 서대쥐의 모습은 ‘환난상홀(患難相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줌)’의 가치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 속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부자로서의 서대쥐 모습이 각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 사회가 이러한 전통적인 향약의 기능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향촌민들 간 심각한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⁷⁾ 1860년에 창시되어 19세기 후반 들불처럼 번져나간 동학에서 ‘유무상자(有無相資: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움)’를 기치로 내세워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함께 잘 살아감)’의 사회를 꿈꾸었던 것도 그러한 사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서동지전〉은 마치 흥부와 놀부 각각의 장점을 조합해

아닐까 한다.

- 27) 정홍모는 조선 후기에 “삼강오륜이나 향약의 실천항목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윤리 규범들보다는 (...) 개인의 경제적 이익추구가 일상행위의 실질적 동기로 작용하여 개인·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을 이 시기 송사소설의 집중적인 창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녹처사연회〉 같은 작품은 “전통적인 향촌사회의 윤리덕목인 향약의 조목도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정홍모, 「송사형 우화소설의 인물형상과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5, 240~241쪽 및 247쪽). 또한 정출현은 〈서대쥐전〉 유형 작품군에서 서대쥐와 다람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조선 후기 “농민층의 분해”, “빈부의 양극화”에 입각하여 해석한다(정출현(1999), 앞의 책, 175쪽 및 183쪽). 고리대가 성행하여 소작인들을 고통에 빠뜨린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는 점도 함께 상기해 볼 만하다. 다만, 이러한 분열과 양극화 속에서 빈자들만 고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전경목은 19세기 후반기의 한 탄원서와 한 공명첩 강매 사례를 통해 요호부민(으로 선정된 이들)이 처해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목한 바 있다. 특히 다음의 언급은 〈서동지전〉 속 서대쥐와 다람쥐의 관계를 떠올려 보게 하며, 서대쥐의 인물 형상이 갖는 각별함도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요호부민은 국가나 수령으로부터 수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못한 하층민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 일쑤였다. 요호부민의 토지를 경작하던 가난한 농민들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병작료를 몇 년씩 바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병작하던 땅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 그것마저 빼앗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했고, 그 책임이 요호부민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한다』, 휴머니스트, 2013, 325쪽의 주3.

놓은 듯한 서대쥐의 행보를 통해, 송사로 대표되는 사회 갈등이 만연했던 조선 후기 향촌에서 화목한 사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데 향유의 초점을 맞추었던 작품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서동지전〉에서 부민 서대쥐가 빈민 다람쥐에게 용서와 구제의 손길을 건네는 선량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잃어버린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과 자치 문화의 회복을 향한 상상력과 맞닿아 있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판관을 일깨우는 서민 영웅과 위정자의 책임에 대한 발견

〈서동지전〉에 그려지는 서대쥐의 인물 형상에 있어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그가 대대로 문장으로 이름난 가문의 후예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설 문면상으로 보건대 작중 현재에 이르러서 서대쥐는 대단히 출세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당 천자로부터 금용성을 치는 데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과 함께 교지를 받기는 했지만 이 또한 직접 조정애 나아감 없이 명예직에 머무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일정한 식견과 부를 토대로 ‘밤이면 산에 올라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밀천으로 삼고, 낮이면 자손으로 더불어 의사를 강론하는’²⁸⁾ 향촌사회의 일반 서민인 것이다. 일반 서민 중에서 문식이 있고 부유하다는 점에서 좀 더 잘난 부류일 뿐이다.²⁹⁾ 이 점은 다람쥐가 무고하는 소지를 올린 후 호랑이(백호산군)의 명을 받은 두 사령 오소리, 너구리가 서대쥐를 잡아들이러 왔을 때 서대쥐가

28)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2쪽.

29) 정홍모는 〈서동지전〉의 서대쥐를 “평민 출신인 요호층”이라고 보았다(정홍모(1995), 앞의 논문, 251쪽). 또 정출현은 〈서대쥐전〉에서 “서대쥐를 옹고집이나 놀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물을 축적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평민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정출현(1999), 앞의 책, 187~188쪽), 그의 이러한 입론은 〈서동지전〉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서동지전〉의 서대쥐는 부를 축적하였고 명예직 양반 교지[同知]를 받는 데까지 이른 평민 출신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에게 하는 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H) 서동지(鼠同知) 오수리를 보고 혼연(欣然)이 우서 곁오더 오별감(別監)은 그 스이 무양(無樣)[‘無恙’의 잘못-인용자주] 하시오 나는 층암절벽(層岩絶壁) 혼 곳에 토굴(土窟)을 의지(依止)[‘依支’의 잘못-인용자주] 하고 그대는 천봉만학(千峯萬壑) 절승(絶勝)처에 산군(山君)을 시위(侍衛) 하야 유현(幽顯)에 길이 다른 고로 마음은 항상(恒常) 그으하나 승안접사(承顔接辭)를 일츠불득(一次不得) 하더니 오늘날 관고(官故)로 말 피암아 루디(陋地)의 왕굴(枉屈) 하야 의외(意外) 청안(淸顔)을 대하니 피즈예츠(牌子例次)는 서서(徐徐)이 슈작(酬酢) 하련이와 일빅박쥬(一杯薄酒)를 워선(爲先) 잠간(暫間) 난호기를 바라노니 모로미 허락(許諾) 할가 (40~41쪽)

서대취(서동지)는 천봉만학의 경치 좋은 곳에서 호랑이를 모시고 일하는 오소리와 달리 자신은 층암절벽의 한 토굴에 의지하여 있다고 말하며 어른을 만나뵙는 일[承顔接辭]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말을 건넨다. 이는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수완 좋은 입심을 발휘해 자신을 낮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가 놓인 처지의 실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는 오소리와 너구리를 후히 대접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기는 하지만 어쨌든 호랑이 앞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개 사령인 오소리와 너구리 앞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집중했던 서대취가 판관 호랑이 앞에서는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나아가 깨우치기까지 하는 서민 영웅³⁰⁾처럼 활약한다는 점이다.

30) 구체적인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영웅’은 개인적인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해서 실현하는 인물이며, 그 결과 집단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서대석, 『영웅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집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177쪽 참조). 흔히 영웅이라 하면 간신이 활개를 치고 오랑캐가 침입하는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천자에게 간언하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영웅소설 속 귀족 출신 주인공

작품 초반부에 제시되었던 문장가의 후손으로서 식견을 갖춘 서대주의 면모가 적극 발휘되는 순간이다.

(I) 행렬(行列) 사이에 서로 스송(訟)을 이르케며 정송지경(爭訟之境)에 이르니 슬푸다 의신(矣身)과 달암취(達岩智)에 무도(無道)호미 아니라 칙지원슈(責在元帥)라 산군(山君)에 교화(教化) 이르지 못함이오 덕(德)이 무왕(武王)을 효측(效則)지 못함이라 (...중략...) 산군(山君)도 덕화(德化)를 멀리 베푸지 못호스 교화 널리 흐르지 못함으로 이런 송스(訟事)가 싱기는 거시오니 스스로 탄식(嘆息)만 호읍시고 의신등(矣身等)의 정송(爭訟)함을 그르다 마옵쇼셔 (46~48쪽)

여기서 서대주는 자신과 다람쥐 사이에서 쟁송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단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짚는다. 또한 자신을 무고한 다람쥐의 무도함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원수에게 있다[責在元帥]’고 하여 적절하게 교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호랑이를 문제삼는다.³¹⁾ 소설 문면상으로 이미 서술자가 다람쥐를 간악하고 어질지 못하며 게으른 존재로 묘사해 두었고, 서대주 또한 다람쥐의 배은망덕함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서대주의 이 발언에 이르러서는 다람쥐 역시도 그릇된 정치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 (I)의 중략 처리한 부분에서 서대주는 다람쥐가 ‘수십 세를 내려오며 빈한한 것을 천산만악

(예: 유충렬, 조웅)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판관 호랑이의 잘못을 짚는 서대주, 변사또의 과오를 낱알이 들춰내는 춘향과 같은 인물들도 영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귀한 혈통과 초인적 능력을 지닌 ‘귀족 영웅’과 대별되는 의미에서 ‘서민 영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31) 조선시대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그 관할구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68, 9~10쪽 참조). 이 점에서 작품 속 호랑이는 관찰사나 수령에 해당하는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서대주가 그를 ‘원수(元帥)로 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호랑이는 단순히 재판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통치자인 것이다.

(千山萬岳)이 모두 이는 바³²⁾라고 하여, 다람쥐의 가난은 전부가 그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도 넉넉히 말하고 있다. 다람쥐 일족이 대대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면, 이는 모종의 제도적 모순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³³⁾ 그리하여 이러한 서대쥐의 발언에 대해 호랑이는 ‘당돌히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는다고 잠시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너같이 곧은 자’라고 칭하며 서대쥐의 소지(所志)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³⁴⁾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에서 “이 부분은 그동안 서대쥐가 지닌 후덕한 면모를 부각하는 것만으로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의 입으로 표명된 당대의 실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서대쥐는 당대를 도탄으로 규정하고 소외된 다람쥐와 같은 존재도 당대가 만들어 놓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초보적 인식을 수행하고 있다”는 언급이 이루어진 바 있어서³⁵⁾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서대쥐의 발언은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대한 초보적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파고든 발언이며, 바로 이 점이 〈서동지전〉의 중요한 문제 제기이자 이 판본에 개재된 향유 의식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I)에서 처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서대쥐가 다람쥐와 자신을 같은 ‘행렬(行列: 항렬)’에 속한 존재, 즉 같은 서민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서민과 서민끼리 싸우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파악,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위정자의 무능한 역할을 지적하는 것이 이 대목의 핵심적 의의이다.³⁶⁾ 〈토끼전〉의 이본 중 하나인

32)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47쪽.

33) 김재환은 〈서동지전〉에서 다람쥐의 서대쥐 무고 행위에 대하여 “배은망덕하다거나 부도덕한 인간의 전형으로만 몰아붙이기에 앞서 부조리한 사회의 부산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166쪽.

34) 영창서관본 〈서동지전〉, 48쪽.

35) 민찬(1995), 앞의 책, 171~172쪽.

〈토별가〉에 나오는 다음의 장면에 나타난 다람쥐와 쥐의 관계를 참고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된다.

여의가 썩 나서며 다람이 가동[과동(過冬)-인용자주] 흐즈 밤과 도토리를 만
니 모와 두엇씨니 가져오라 흐읍쇼셔 손군이 좃타 호고 가져오라 분부하니 다
람이 싱각흔직 좌중의 모운 식구 저보단은 쥬떡 세여 엇지 할 슈 업서시니
저와 갓튼 만만중이 제가 기려 또 니세여 쥬도 양식 만할테니 가져오라 흐읍
쇼셔 손군이 쥬타 하니 쥬와 다름이가 익써 쥬어 모운 거슬 다 갓타 뱃쳐쑤나
(신재효본 〈퇴별가〉)³⁷⁾

여기서는 〈서동지전〉에서의 게으른 다람쥐와 달리, 겨우살이를 위해 밤

36)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으나, 〈서오전(鼠廳傳)〉의 경우에도 다람쥐의 소지를 통해 위정자의 책임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오기에 〈서동지전〉과 비교하는 언급이 필요할 듯하다. 〈서오전〉의 주인공 다람쥐(오침지)는 쥐(서참봉)에게 양식을 탈취당한 후 살팽이(영장)에게 소지를 올리지만 쥐가 뇌물을 쓴 까닭에 오히려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는 등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호랑이(임금)에게 두 번째 소지를 올리는데, 그 안에 위정자가 밝은 정사를 펼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판의 관점은 〈서동지전〉과 결이 사뭇 다르다고 판단된다. 〈서동지전〉에서는 서대쥐가 자신과 소송의 상대자인 다람쥐 둘 다를 그릇된 정치의 피해자 범주에 함께 포섭시키면서 호랑이의 책임을 지적한다. 반면에, 〈서오전〉에서는 다람쥐가 쥐(나아가 여우, 살팽이 등)를 “기강이 문란하고 법제가 어그러지고 폐”한 결과물로 보면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범주에 포섭시키고 있지는 않다(〈서오전〉 결말에서 쥐를 비롯해 살팽이, 여우는 모두 처벌받는데, 이는 〈서동지전〉에서 다람쥐가 용서받는 것과도 대비된다). 서달중 저, 유기욱 역, 「〈서오전〉 역문과 원문 및 주석」,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401~416쪽 참조. 이런 점에서 필자는 〈서동지전〉이 송사로 대표되는 서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파악한다.

37) 김진영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 1997, 18쪽. 이 인용문은 완판본 〈퇴별가〉에도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는데(김진영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 1998, 38쪽), 완판본 〈퇴별가〉는 “시숙의 비호면은 손군은 슈령 갖고 여우난 간물출쩨 손헝기 난 세도아전 너구리 멧뜻시며 쥐와 다람이난 굶쳐 앓난 뵝성이라”와 같은 다소 민감한 구절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면 신재효본 〈퇴별가〉를 거의 그대로 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둔 성실한 다람쥐가 나온다. 그러나 그는 호랑이의 비위를 맞추는 여우의 간교한 말로 인해 자신이 모아둔 양식을 다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 당면하자, 자기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와 같은 만만쟁이’로 쥐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등장하는 꿈의 발언에서 이들 다람쥐와 쥐는 공히 ‘굶지 않는 백성’으로 묘사되는 데서 알 수 있듯, 그들은 진정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서민끼리 연대하거나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결국 또 다시 서민의 몫이 되고 만다. 〈서동지전〉의 서대쥐가 호랑이에게 당당하고도 준절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I)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봄직하다.

이렇게 보면, 서대쥐에게 있어 진정한 문제 사태의 근원은 그를 무고한 빈자 ‘다람쥐’도, 관에 딸린 사령으로서 자신을 잡으러 심부름 온 ‘오소리’와 ‘너구리’도 아니다. 그들은 크게 보면 향촌 사회 서민들의 일원으로서, 당대 조선 사회의 부패한 정치, 지배 구조의 모순을 왜곡된 형태로 체화하고 있는 피지배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대쥐가 호랑이 앞에서 피지배층 서민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위정자의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서동지전〉이 획득한 또 하나의 유의미한 문제 제기이자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야 할 이들끼리 또 다시 서로 편이 갈라져 갈등을 빚을 때 그 가운데 정작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하는 자조 섞인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서동지전〉에서 이처럼 사회 갈등에 있어서 위정자의 역할 부재, 즉 정치 기능의 마비를 강조하는 서대쥐의 발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남긴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일상 속에 깊게 자리해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역시 애꿎은 ‘을’들 개인끼리 서로 편을 갈라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더 커다란 ‘갑’의 구조적 문제

는 은폐되고 있진 않은지와 같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서대쥐가 단지 향촌의 부유한 서민이었을 뿐이라면 어떻게 지배층인 호랑이에게 그렇게 대담한 비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비현실성을 지적해 볼 수도 있다.³⁸⁾ 다만 우리는 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켰던 사랑의 영웅이자, 변사또의 부당한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그의 학정(虐政)을 지적함으로써 민중 영웅으로서의 면모도 일부 대변했던 열여섯 살 소녀 춘향의 모습을 함께 겹쳐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춘향전〉에서 변학도에게 대항한 춘향의 모습이 실제 이치로 보면 다소 비현실적이어도 깊은 문학적 울림을 남겼듯, 〈서동지전〉에서 서대쥐가 보여준 호랑이에 대한 용감한 비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춘향에 비하자면 서대쥐는 천자로부터 명목상이나마 ‘동지(同知)’ 벼슬을 받았기에, 호랑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바로 그러한 벼슬을 받고도 어떠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억울하게 소송만 당한 서대쥐가, 그 자신을 무고한 ‘다람쥐’도, 또한 그를 잡으러 온 ‘오소리’·‘너구리’도 아닌, ‘호랑이’를 궁극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렇듯 위정자의 면전에서 용감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은 서대쥐의 모습에 〈서동지전〉의 또 하나의 개성적 가치가 중요하게 깃들어 있다고 본다.

4. 결론

동물 세계를 빌려서 인간 세계를 성찰하는 이야기는 『삼국사기』 김유신

38) 실제로, 회동서관본 〈서대쥐전〉(1918)에서는 다람쥐의 무고를 입은 서대쥐가 원님의 비위를 맞추어 결국 재판에서 이기고, 이후 자신의 재력을 매개로 원님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대 향촌 부민들의 일반적인 처세 방식이었을 것이다. 회동서관본 〈서대쥐전〉, 72~73쪽(『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16, 계명문화사, 1977, 666~667쪽).

조에 전하는 <구토지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연원이 무척 오래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활발히 유통된 동물 우화소설은 동물을 내세움으로써 인간 존재의 복잡한 면모를 다채롭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동물에게 기댄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 사회의 문제를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예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데서 엿볼 수 있듯, 동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친구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투사한 동물 이야기들 역시 여전히 꾸준하게 사랑받으며 창작과 재창작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전통의 동물 우화소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의외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이 글은 비교적 잘 알려진 <토끼전>, <장끼전> 외에도 조선 후기에 활발히 창작되고 향유된 동물 우화소설들을 잘 들여다보면 유익하게 재음미되고 재해석될 만한 작품이 더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작품 종류가 비교적 많고 편폭이 다양한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그 중에서도 주제적 초점을 좀 다르게 분류해 볼 수 있는 <서동지전>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조선 후기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 또 오늘날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주인공 서대위의 인물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폈다.

대상 텍스트는 영창서관본 <서동지전>(1918)이었는데, <서대주전>으로 대표되는 전체적인 이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판본은 구활자본으로 간행될 때 개작된 혐의가 짙다고 추정되기도 했다.³⁹⁾ 그러나 이 영창서관본의 개작이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든 20세기 전반의 구활자본 간행 시기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이든,⁴⁰⁾ 주인공 서대위의 개성적 인물 형상화를 통해

39) 정출현(1999), 앞의 책, 202쪽에서 영창서관본 <서동지전>의 경우 재물에 의한 관권의 농락이 매우 미약하게 그려져 있음을 지적하고 산군의 부덕(不德)을 지적하는 서대위의 변론이 구활자로 간행될 때 개작된 혐의가 매우 짙다고 평가하였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갈등 소재와 지향점에 대해 깊이 사유한 흔적은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했듯, 같은 서민에게는 포용적이면서 위정자 앞에서는 용감했던 서대쥐 인물 형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지향점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과 울림을 준다. 〈서동지전〉이 유익한 문제 제기를 담은 동물 우화소설이자 당대 성과 현재성을 아울러 지닌 고전소설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이러한 〈서동지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 예컨대, 사회 갈등을 줄이고 화목한 사회를 회복함에 있어서 서대쥐가 다람쥐를 구제한 것처럼 이타적인 부자의 시혜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조선 후기에 부민이 구휼이라는 명목 하에 빈번한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 서대쥐가 호랑이의 책임을 지적한 부분은 자칫하면 통치자 한 개인에게 모든 원흉을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일 소산도 있다. 다만 서대쥐의 위정자 비판은 개인에 대한 비판에 머문다기보다 그가 대표하는 정치판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정자와 정면으로 마주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대 사회에 비추어 우리가 〈서동지전〉을 다시 읽어나가는 데, 그리고 더 발전적인 동물 우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비판적인 재해석과 전망적인 상상력을 가미해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이다.

40) 참고로 필자는 연구 과정에서 영창서관본 〈서동지전〉이 이 이본의 최초 판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텍스트 인용시 필자가 잘못을 바로잡는 인용자주를 여러 개 덧붙였던바, 원문의 한글과 한자 표기상에 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난다는 점이 그 중요한 하나의 이유다. 이는 어떤 모본(母本)을 국한문을 병기한 판본으로 재출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그래서 영창서관본의 모본 존재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더 추적해 볼 필요성을 제안해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鼠大州傳〉(문선규, 『화사 외 2편』, 통문관, 1961, 83~102쪽.)
 〈鼠廳傳〉(서달중 저, 유기옥 역, 「〈서오전〉 역문과 원문 및 주석」,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401~437쪽.)
 영창서관본 〈서동지전〉(『구활자소설총서: 고전소설6』, 민족문화사, 1983, 1~51쪽.)
 회동서관본 〈서터취전〉(『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16, 계명문화사, 1977, 645~668쪽.)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1~636쪽.
 _____,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373쪽.
 _____, 『홍부전 전집』 3, 박이정, 2003, 1~391쪽.
 _____, 『토끼전 전집』 1, 박이정, 1997, 1~546쪽.
 _____, 『토끼전 전집』 2, 박이정, 1998, 1~419쪽.
 신해진 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1~397쪽.
 최진형 옮김, 『서동지전』,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 1~110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 논저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1~447쪽.
 민 찬, 「〈서대주전〉의 전승경로와 사회적 성격」, 『인문과학논문집』 17,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김재환 편저, 『한국 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187~232쪽).
 _____,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1~342쪽.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68, 1~453쪽.
 신경숙, 「송사형 우화소설-「서대주전」 「서동지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0,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101~130쪽.
 유기옥, 「〈서오전〉 평석」,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87~109쪽.
 장예준, 「〈서오전〉의 서사적 특징과 주제의식」,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2020, 375~408쪽.
 _____, 「송사형 우화소설의 한 가지 독법: 〈서옥기〉의 재판 공방 양상과 향유 지점」, 『동악어문연구』 82, 동악어문학회, 2020, 179~215쪽.
 _____, 「송사형 우화소설에 형상화된 재판의 사실성과 연구사적 전망-〈서오

- 전)에 나타난 재판의 양상, 『동양고전연구』, 82, 동양고전학회, 2021, 69~103쪽.
- _____, 「송사형 우화소설의 유형적 본질과 존재 의미」,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225~262쪽.
-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1~383쪽.
- 정승모,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민속원, 2010, 1~351쪽.
- 정영문, 「취와 다람쥐 소재 우화소설 〈다남의 소지랑〉」, 『한국문학과 예술』 3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323~349쪽.
- 정출현,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1~385쪽.
- 정충권, 「우화소설의 지식 담론 활용과 그 후대적 변용」, 『고전문학과 교육』 4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143~176쪽.
- 정학성, 「우화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정학성, 『고전소설의 양식과 비판정신』, 월인, 2015, 241~298쪽).
- 정흥모, 「송사형 우화소설의 인물형상과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239~256쪽.
-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1~431쪽.
- 향촌사회사연구회, 『조선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1990, 1~280쪽.
- 황재균, 「조선 후기 의인체 설화소설의 근대적 성향-장끼전과 서동지전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학회, 1983, 153~186쪽.

ABSTRACT

The Characterization of Seodaejwi in *Seodongjijeon*
and its Significance

Lee, Hae-jin

This article focuses on *Seodongjijeon*, one of the allegorical novels of the lawsuit-type, to examin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haracterization of Seodaejwi(Seodongji), an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is work. The term “significance” is used here to refer primarily to the achievements of *Seodongjijeon* as a literary diagnosis of late Joseon society, but it also encompasses the implications of *Seodongjijeon* for Korean society today. This is to actively reveal that *Seodongjijeon* is a Korean classic novel that is worth revisiting.

Seodongjijeon is a novel that has a mutual influence with *Seodaejujeon* in that it deals with the struggle for food and lawsuit between the rat and the squirrel, but it differs from *Seodaejujeon* by subverting the good and evil characterization of the rich Seodaejwi and the poor squirrel and portraying Seodaejwi in a positive light. This article captures the specific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positive portrayal of Seodaejwi in two aspects. One is the ‘birth of commoner who is good and rich’ and the ‘orientation to a harmonious society’ contained in it. Amidst the economic polarizat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resulting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society, Seodaejwi’s embrace of the squirrel, a good wealthy man, can be interpreted as an imagination for the restoration of a harmonious society. Another is the ‘commoner hero who awakens the judge’ and the ‘discovery of the responsibility of rulers’ contained therein. Seodaejwi tells the judge, who is the tiger, that the cause of the litigation is not the misbehavior of the common people, but the wrong politics of the ruler. This can be evaluated as an insight into the essential cause of social conflict in light of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t that time.

Allegorical novels about animals have the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omplexity of human existence in a various way by using characteristics of animals. But at the same time, the very fact that they rely on animals has the advantage of showing the problems of human society more freely and sharply. *Seodongjijeon* is a novel that fully demonstrates this advantage. The significance of the figure of Seodaejwi, who is tolerant to his neighbor and bravely confronting his ruler, and the resonance it has for us today can also be found here.

Key Words

Seodongjijeon, lawsuit-type allegorical novel about rats and squirrels, characterization, thematic focus, enjoyment consciousness, commoner hero, contemporariness of Korean classic novel

논문투고일: 2023.07.15.

심사완료일: 2023.08.08.

게재확정일: 2023.08.11.